***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16일 토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44호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제639군부대를 시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13일 조선인민군 제639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장의 안내를 받으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현지교시판을 돌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군부대는 위력한 일당백의 무적의 전투대오로 자라날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신 다음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부대의 지휘관들이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풍성한 급식조건을 마련한데 대하여 거듭 치하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이어 군부대에서 자체로 건설한 은정원을 돌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목욕탕, 리발실, 미용실, 주방, 식당과 청량음료점을 비롯한 편의 및 급양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빵과 국수의 량과 질로부터 목욕물의 온도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헤아려 보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병사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훌륭한 봉사기지를 건설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에서 병사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전사들을 친혈육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숭고한 동지적의리의 힘으로 백승을 떨쳐 온 항일유격대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우리 군대에서만 창조될수 있는 자랑스러운 미풍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전군이 이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예술선전대원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부대의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은 전쟁연습놀음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

조평통대변인 성명 - 주체91, 3월 14일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미제에 의하여 위험한 전쟁국면에로 치닫고 있다.

미제침략군의 주도하에 남조선에서는 다가오는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하여 미군과 괴뢰군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릴것이라고 한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일본, 괌도 등 해외기지들에 있는 미군과 미제7함대소속 항공모함을 비롯하여 수만명의 미제침략군과 50여만명의 남조선괴뢰군이 참가하게 된다.

이것은 이미 핵예비전쟁으로 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규모를 훨씬 릉가하는 극히 무모한 불장난소동이다. 부쉬의 ≪악의 축≫망발이후 미행정부안에서 북침열이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는 때에 남조선에서 이러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벌리려 하는것은 미제의 대조선침략정책이 실천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지금까지 갈라서 각각 진행해 오던 북침전쟁연습들을 최종단계에서 완성하여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 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려는데 있다.

지난 시기 서울 이남지역에서 실시하거나 모의훈련으로 대치해오던 두개의 군사연습을 이번에 우리와 가까운 전연지역에서 통합하여 벌리려 하고 있는 사실자체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조선반도정세를 6.15북남공동선언 발표 이전으로 돌려세우고 사태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가려 한다는것을 그대로 실증해 준다.

특히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년초부터 우리를 ≪악의 축≫으로 걸고 들던 호전광 부쉬가 남조선을 행각하여 전쟁모의를 벌리고 미국이 최근 우리를 핵공격대상국으로 지정해 놓은 사태가 폭로된 이후에 강행되는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극히 무모한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새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고 우리 민족을 핵참화속에 몰아 넣기 위한 침략전쟁의 서막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미제에 의하여 완화와 협력과 단합의 방향으로 흐르던 조선반도정세는 이제 대결과 긴장의 한계를 벗어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로 접어들고 있다.

(9면에 계속)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세기와 더불어
4 4장 5절 조선혁명군 (1)

칭송
6 군민일치 / 세계의 거울
6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7 통일혁명당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일에 부쳐
7 열사의 염원을 실현하자
8 참 애국의 현주소
8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3월 14일

조선중앙통신
9 주체91, 3월 4일 보도
10 뜻 깊은 올해에 군민일치사상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자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1 선군음악의 새시대 개척

아리랑뉴스

12 F-X사업 중단촉구 기자회견
12 민주노동당, 창당 2주년을 맞다
12 공무원노조 16일 출범식
13 고이즈미 방한 앞서 투자협정반대 시위
13 민주당, 이회창총재 땅투기 의혹 제기
13 ≪나홀로 시위≫ 금지 추진
14 한총련 합법화 위한 범사회 대책기구 설명회
14 대학내에서 정치활동 하지마라(?)

운동강좌
15 청년학생대중조직의 민주주의적 운영 (1)

광고
15 6.15주간 38호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세계평화연합 총재와 한 담화 / 주체80(1991)년 12월 6일

나는 문선명총재선생이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부인과 친우들을 데리고 조국을 방문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총재선생과 이렇게 만나 낯을 익히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숙해지게 된 것자체가 조국통일을 위하여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어제 우리의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위원장과 세계평화연합 총재선생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나도 그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나는 공동성명에 밝혀진 내용들을 서로 성실히 이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총재선생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는데 나는 이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가 1972년에 남측과 함께 발표한 7. 4공동성명의 3대원칙 즉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자고 북과 남이 합의하였지만 그후에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데는 여러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었지만 그에 대하여 구태여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백히 말하여야 할 것은 조국통일은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입각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특히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온 민족이 조국통일이라는 하나의 목표밑에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사람이 단결하면 그 힘이 한사람의 힘보다 더 클 것이며 이렇게 전체 조선민족이 단결하면 통일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민족의 대단결을 주장하여왔습니다. 1945년 10월 14일 우리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10여만명의 평양시민들앞에서 나는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우리 민족의 대단결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4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가 통일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한 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면 90년대에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단결은 힘입니다. 힘가운데서도 제일 강한 힘이 사람의 단결된 힘입니다.

나는 얼마전에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하여 우리 일군들과 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자는 것이 그 담화문의 기본사상입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애쓰는 사람은 통일을 원하는 애국자이고 민족의 대단결을 방해하는 사람은 통일을 반대하는 매국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자체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내부에 대단결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바로 그런 세력을 부추기고 우리 민족내부에 쐐기를 쳐서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내부가 짬이 없이 다 단결되어있으면 아무리 외부세력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총재선생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도 하고 함께 통일의 길도 모색하니 우리들은 이미 단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번 말하였지만 우리는 과거지사를 묻지 말고 서로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부강조국건설이라는 민족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자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총재선생이 방금전에 ≪정상회담≫에 대해 말하였는데 우리는 이미 여러번 북남최고위급회담을 하자고 제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남측의 최고당국자를 초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노태우≪대통령≫도 말로는 ≪정상회담≫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남최고위급회담을 하자는 목적이 우리와 다릅니다. 나는 온 민족이 통일을 열망하고 있는 것만큼 두 최고위급이 마주 앉아 하는 회담은 조국통일을 위한 결정적인 국면을 실지로 열어놓는 그런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노태우≪대통령≫은 그런 것이 없이 그저 만나자고 합니다.

온 민족이 조국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때에 북과 남의 두 최고위급이 마주 앉아 커피나 마시다가 헤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뚜렷한 목적과 대안이 없이 그저 마주 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총재선생과 이렇게 만나는 것과 두 최고위급이 만나는 것은 그 성격과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총재선생과 이렇게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는 것은 열백번을 만나도 일없지만 ≪정상≫을 만날때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주석과 남조선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서로 만나면 통일을 위해 무엇인가 큰일을 해놓아야 합니다.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만나는 것만큼 만나는 이유가 당당해야 합니다.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데 서로 뜻을 같이해야만 만나는 것이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고 하고 남에서는 ≪두개 국가≫를 만들자고 하니 최고위급회담자체가 성사되기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통일할 생각이 있어야 의사가 소통되겠는데 남에서 분열에 생각을 두고 있으니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습니다. 통일할 생각이 없으면 부당한 구실과 억지주장만 나오기 마련입니다.

만일 우리가 통일된 하나의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두개 국가≫의 공존체제를 만들어놓는다면 그것은 후대들에게 ≪두개 국가≫를 물려주는 것으로 되며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두개 국가≫로 갈라져 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져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선의 분열을 꾀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입니다.

옛날 중국 청나라 때에 증국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이쯔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다스린다는 말인데 분열하여 통치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사람들은 우리 조선을 두개로 만들어 조선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용감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조선이 하나로 통일되면 세계적인 강국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 강대국이 하나더 생기는 것이 겁나서 우리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여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민족이 단결하여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수어버리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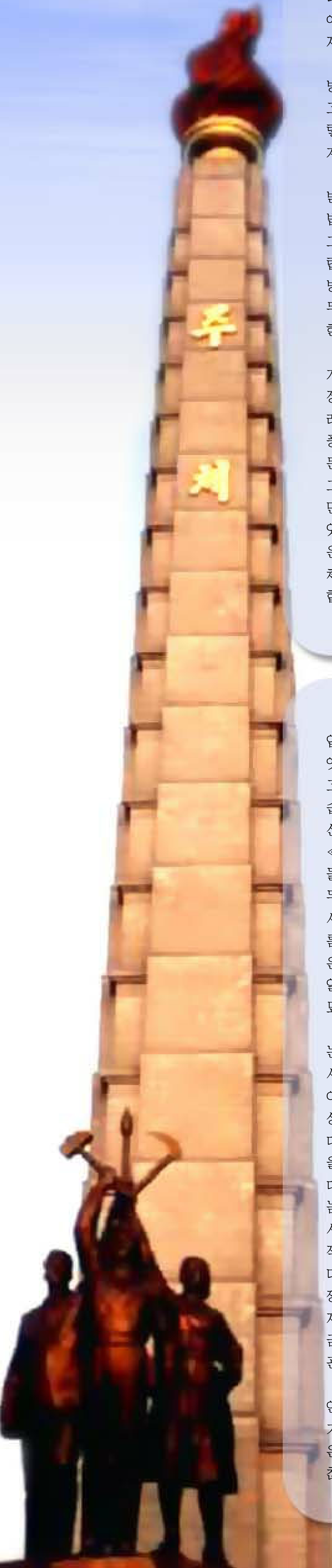
조국통일을 하는데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남쪽에서는 우리가 ≪적화통일≫을 하려고 한다고 거짓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평화적 방법으로, ≪승공≫도≪적화≫도 아닌 연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할 데 대한 방안을 여러번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적인 국가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이고 따라서 국가도 응당 하나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개의 제도 즉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가 있으며 정부도 두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면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는 방법이 아니라 북과 남에 있는 두개 제도, 두개 정부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방식으로 하나의 민족통일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걱정하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서도 우리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설명하여주군 합니다.

연방제로 통일한 다음 인민들이 어느 제도를 선택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후손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는 후대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하나의 연방국가를 세워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반드시 우리 대에 우리들자신이 해야 합니다.

올해에 북과 남은 유엔에 가입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유엔에 하나의 의석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수차 강조하고 서로 회담도 하였지만 남쪽에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혼자만이라도 유엔에 들어가겠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우리도 유엔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유엔에 들어가서도 북과 남이 응당 하나의 의석을 차지해야 하



며 나아가서는 연방제통일이라도 하여 하나의 유엔성원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측에서는 유엔에 북과 남이 따로따로 들어갔으니 이제는 ≪두개 국가≫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조국을 둘로 갈라놓는 것은 민족앞에 천추를 두고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연방제통일방안이 싫으면 그보다 더 좋은 안을 내놓고 우리를 찾아오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두개 조선≫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재선생이 남측에서 연방제통일방안을 받아물기 힘들어 하면 한지역씩 점차적 방법으로 통일해보는 것이 어떤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민족인 우리 민족이 연방제를 하지 못할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국통일을 무한정 끌고 가겠습니까.

남측이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두개 국가≫로 공존하게 할 것을 아무리 주장한다 하여도 ≪두개 국가≫의 공존이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역사와 문화, 언어와 풍습이 같은 하나의 우리 민족이 무엇 때문에 ≪두개 국가≫로 갈라져 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민족자체가 바라지 않습니다. 민족은 뗄 수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이런 운명공동체를 두개로 토막치겠다는 그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다당제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미국의 작간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라들은 거의 모두가 여러 종족들이 모여 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인 것만큼 다당제는 결국 그 나라들을 분열과 싸움에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한나라, 한민족안에 서로 대립되어 싸우는 여러개의 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의사를 대표하고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를 영도하는 하나의 당이 있고 다른 정당들도 그 당과 단결하고 협조하여야 민족이 원하는 부강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단결과 협력은 인간의 생존방식입니다. 또 민주주의는 파쟁이나 정쟁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분열을 주장하는 다당제는 저지되어야 하며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단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당제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정치수단이 아니라 분열하여 통치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통치수법입니다. 제3세계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은 다당제의 이러한 본질을 알고 이에 경각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당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데 대해서는 총재선생도 우리와 뜻을 같이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은 누구나 조국통일이 빨리 되기를 절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8. 15해방 50돌이 되는 1995년까지는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팎의 정세를 보면 1995년까지 통일을 할 것 같지 못합니다.

방금 총재선생이 겨레의 단결을 이룩하면 내일에라도 통일할 수 있으니 주석께서 전민족의 단결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말하였는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북남간의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결된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협상도 제기하고 북남최고위급회담도 제기하였지만 잘되지 않습니다.

이미 말하였지만 우리는 남조선에 공산주의를 강요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남조선에서도 북의 공산주의를 소멸할 생각을 하지 말라,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연방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고 계속 주장하는데 남쪽에서는 우리의 연방제통일방안을 받아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조국을 ≪두개 국가≫로 영영 갈라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는 79살이고 선생도 72살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고 후손들에게 통일조국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선생이 이제 돌아가면 우리가 이러한 원칙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도 하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자고 한다는 것을 미국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남조선당국자들에게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사람들에게도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 지지하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재선생이 조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평양시를 아름다운 예술작품과 같이 세계에 자랑할만한 현대적인 도시로 건설한데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는데 나는 이에 대하여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틀동안 금강산관광을 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명산이 많습니다. 옛날 서산대사는 조선에 5대명산이 있다고 하면서 백두산과 묘향산을 먼저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 지리산, 구월산을 꼽았습니다. 지리산을 남쪽에서는 ≪지이산≫이라고 부르고 여기 북쪽 사람들은 지리산이라고 합니다. 서산대사는 백두산은 웅장하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추워서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고 금강산은 아름답기는 한데 웅장한 맛이 없다, 묘향산은 아름답고 웅장하기 때문에 묘향산이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산대사의 절간도 묘향산에 있습니다.

서산대사가 73살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왜놈들이 평양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서산대사는 원래 안주사람입니다. 왜놈들이 우리 나라에 쳐들어오자 선조대왕은 백성들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갔지만 서산대사는 5, 000명의 중을 모아가지고 의병을 조직하여 왜놈들과 싸웠습니다. 서산대사는 평양방어사 김응서와 합세하여 왜놈들을 평양성에서 내쫓았습니다. 서산대사처럼 73살 되는 고령에 나라를 위해 외적과의 싸움에 과감히 나선 명장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전후에 전쟁때 폭격으로 파괴된 묘향산 절간을 먼저 원상대로 복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묘향산 절간에는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있는데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재선생이 이번에 금강산에 가서 구룡연에도 올라가보고 금강산온천에도 들어가보았으면 잘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온천이 많습니다. 금강산온천은 몸에 괜찮습니다. 그 온천의 물온도는 40도정도이지만 옹진군에 있는 온천은 물온도가 100도나 되며 명천에서 나오는 온천도 온도가 거의 그만큼 됩니다. 양덕에서도 80도, 60도 되는 물이 나오는데 온천목욕을 하는데는 40도면 됩니다.

주을온천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그 곳을 주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원래 주을이라는 말은 우리 조선말이 아니고 여진족들이 쓰던 말입니다. 여진족들이 함경북도 지방에까지 나왔댔습니다. 주을이라는 말은 여진족말로 더운물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을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라고 하였더니 그 지방사람들은 이 지방에 비가 쭈룩쭈룩 많이 내려서 주을이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상하여 역사학자들에게 과업을 주어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을이라는 말이 여진족 말이며 더운물이라는 뜻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을이라는 고장이름이 이렇게 여진족 말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천이름을 ≪경성온천≫으로 고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야 조선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여진족들이 지어놓은 이름을 그대로 쓰겠습니까.

경성이라는 첫 글자는 한문자로 거울경자입니다. 그전에는 경성이 함경도의 중요한 고을이였습니다. 원래 함경도라는 것이 함흥하고 경성이라는 두 고을의 첫 글자를 따서 함경도라고 한 것입니다. 함경도를 둘로 갈라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가 되었습니다. 지난날 일본사람들이 주을에 와보니 온천도 좋고 먹는 물도 좋다는 것을 알고 주을에서 나는 물을 많이 가져다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에서 나는 물은 어디 물이나 다 좋습니다.

총재선생이 인민대학습당과 서해갑문을 돌아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같으면 그런 큰 건축물들을 짧은 기간에 건설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높이 평가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서해갑문을 건설하지 않았더라면 평양은 아마 여러번 물에 잠겼을 것입니다. 평양시가 대동강을 끼고 있는데 이전에는 대동강으로 조수가 올리밀 때 강의 수위가 6미터나 높아지군 하였습니다. 만일 그때 대동강상류에서 물이 불어나 내려오는 강물과 올리미는 조수가 합치게 되면 대동강이 범람하여 평양시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1967년에 대동강이 범람하고 평양시가 물에 잠겨 큰 재난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포근방의 대동강하구에 갑문을 하나 건설하여 강으로 밀려들어오는 조수를 막기로 하였습니다. 1986년에 갑문을 완공한 다음부터 서해바다의 조수가 대동강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장마철에 대동강물이 아무리 불어나도 평양시가 물에 잠길 위험이 없어졌습니다. 서해갑문을 건설한 다음부터는 서해바다의 짠물이 강으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대동강물을 많은 공장들의 공업용수와 주민들의 음료수로 쓸 수 있게 되고 그 물로 논밭에 관개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문을 막은 다음부터는 대동강에 항상 물이 가득차있기 때문에 평양시의 경치도 더 아름다와졌고 평양시주변의 기온도 2도정도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총재선생과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제는 자주 오십시오. 오랜 친구와 같이 생각하고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끝)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5. 조선혁명군 (1)

카륜회의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운 당조직건설사업은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의 결성으로 제일보를 내디뎠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 우리 앞에는 무장투쟁준비를 다그쳐야할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었다. 우리는 무장투쟁준비를 위한 첫 사업으로 고유수에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였다. 우리가 1년이나 2년이 지난후에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조선혁명군과 같은 과도적인 정치 및 반군사조직을 내온 것은 그 군의 활동을 통하여 대규모의 유격부대를 꾸리기 위한 준비를 해두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우리는 조선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을 통하여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려고 하였다.

사실 우리한테는 무장투쟁을 벌이는데 필요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령토에서 무장투쟁을 해야 하는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그에 상응한 경험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만한 군사교범이나 경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에게 밑천이 있다면 독립군 출신의 몇몇 동무들과 화성의숙을 다닌 얼마간의 동무들이 있고 몇자루의 권총이 있을 뿐이었다. 그 나머지는 백지상태였다.

무기도 우리 속으로 획득하고 군사적 경험도 우리 스스로 축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과도적 조직으로 내온 것이 바로 조선혁명군이었다. 고유수에서 처음에는 김원우, 리종락이 혁명군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준비사업의 기본은 혁명군에 입대시킬 청년들을 선발하는 일과 무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독립군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선진사상에 동조하는 똑똑한 군인들을 돌려세워 사람이나 무기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도로 내세웠다. 혁명군에 군인출신이 많으면 그들이 모체가 되어 군사지식이 없는 청년들도 얼마든지 훈련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동무들이 국민부 산하에 있는 독립군과의 사업을 많이 하였다.

옥중의 김형권동지

우리의 방침은 독립군중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군인들을 교양하여 우리 진영으로 돌려세우며 사상적 준비정도에 따라 혁명군에도 받아들이자는 것이었다.

국민부는 이 시기에 와서도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로 나뉘여 권력싸움을 계속하였다. 그 당시 국민부파는 재만조선인 통수권을 쥐었고 반국민부파는 독립군의 통수권을 쥐었다. 이 조치는 결국 민중과 군대를 분렬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1930년 여름에 들어서면서 두파의 대립은 서로 상대편 간부들을 암살하는 테로전으로 번져져갔으며 이 테로전을 절정으로 하여 두 파의 세력은 완전한 결렬에 이르렀다.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신데 대한 자료

사태가 이 지경이였기 때문에 독립군내에서는 대원들 뿐 아니라 소대장, 중대장들까지도 상층부를 불신하였고 상층이 주는 지시를 잘 받아물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파견한 공작원들의 말을 더 잘 들었다.

차광수는 통화, 휘남, 관서 일대에서 독립군과의 사업을 하였으며 리종락은 고유수에서 자기 휘하에 있는 대원들을 교양하여 혁명군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다.

리종락은 원래 고유수에서 정의부소속의 독립군 1중대에 있다가 화성의숙에 와서 공부할 때 ≪ㅌ·ㄷ≫에 가입한 사람이다. 그와 같이 화성의숙에 추천되어온 1중대출신의 학생들가운데는 박차석, 박근원, 박병화, 리순호를 비롯하여 여러명의 청년들이 있었다. 리종락은 화성의숙이 폐교된 후 고유수에 있는 자기 출신중대로 돌아가 부중대장을 거쳐 중대장이 되었다. 지금과는 달리 군력이 얼마되지 않던 당시에는 중대가 큰 군사력량이였다. 만주에서 세력이 제일 강하다고 하던 국민부도 산하에 겨우 아홉 개의 중대를 두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중대장이라면 자연히 독립군들 속에서 큰 인물로 떠받들리기 마련이었다. 고유수에서 리종락의 위신이 대단했다.

김혁, 차광수, 박소심 동무들이 1928년부터 1929년사이에 류하지방에서 최창걸의 영향하에 있는 독립군의 보호를 받으며 혁명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처럼 고유수에 파견된 우리 동무들도 리종락이 지휘하는 독립군부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하였다. 리종락은 그때까지만해도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와 열의가 대단히 높았다. 그는 화성의숙이 폐교된 후 출신중대에 돌아가 우리가 화전에서 준 과업대로 독립군 대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였다. 대담한 것, 결단성이 있는 것, 판단력이 빠른 것, 통솔력이 강한 것, 이런 자질이 그의 우점이었다. 그대신 그에게는 랭철한 리성과 사고력이 부족하였다. 기분주의가 많고 과격하였으며 개인영웅심이 농후하였다.

이것이 훗날 그를 혁명을 배반하는 길로 굴러떨어지게 한 중요한 병집이였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독립군이 지휘체계도 정연하지 못하고 또 그 내부가 뒤죽박죽인데 각 지방에 산재해있는 중대들을 무장해제시켜가지고 국민부 반동들을 숙청하자고 하였으며 독립군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면서 무장도 얻고 국민부와도 대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독립군과의 사업에서 좌경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런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였다.

형권삼촌도 두개의 공작조를 편성해가지고 장백지구에 나갔다. 삼촌은 지양개 뒤산에 근거지를 정하고 장백의 여러 지역에 백산청년동맹지부와 농민동맹, 반일부녀회, 소년탐험대를 조직하여 무기공작과 의식화활동을 하였으며 지방청년들을 흡수하여 군사훈련도 주었다. 형권삼촌의 노력으로 장백지구에 있는 독립군력량이 우리의 영향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대원들을 선발하고 그 후비를 마련하는 사업과 함께 무기를 얻기 위한 공작도 맹렬하게 진행되었다.

무기를 해결하는 데서 제일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은 최효일이었다. 최효일은 철령에 있는 일본인무기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였다. 그 당시 일본사람들은 만주에서 총장사를 많이 하였다. 그들은 총을 비적들에게도 팔고 중국인 지주들에게도 팔았다. 최효일은 소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청년이었지만 일본말을 아주 잘하였다. 그가 일어로 대화할 때면 조선사람인지 일본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류창하였다. 최효일이 점원으로서는 아깝다고 할만큼 명석하고 일본말도 잘하였기 때문에 상점주인은 그를 매우 신임하였다.

최효일을 제일먼저 쟁취한 사람은 장소봉이었다. 장소봉은 카륜을 개척할 때 장춘, 철령, 공주령 일대를 왔다갔다하면서 우연히 최효일을 알게 되었다. 몇차례의 접촉을 통해 상대가 성실하고 대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최효일을 반제청년동맹에 흡수하고 그를 리종락에게 소개해주었다. 이때로부터 최효일은 철령에서 적후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는 리종락과 련계를 가지고 독립군 중대들에게 무기를 살금살금 팔아주었다. 상점주인은 최효일의 손을 거쳐 판매되는 무기가 조선사람들한테 넘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상고를 높이는데만 급급하여 그런 것은 아는 체하려고 하지 않았다. 최효일은 무기를 처음에 중국인들한테 팔아주다가 다음에는 독립군한테 넘겨주었으며 나중에는 일본인상점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조달해주는 전용상점으로 만들어버리었다. 그 과정에 그의 세계관도 몰라보게 발전하였다. 리종락과 장소봉은 나를 만날 때마다 철령에서 멋있는 청년을 한명 흡수하였다고 하면서 최효일의 자랑을 하곤하였다. 그래서 나도 최효일에게 은근히 큰 기대를 품게 되었다.

1928년인가 1929년에 최효일은 나를 만나려고 일부러 길림에 찾아왔다. 만나고보니 얼굴이 규방처녀들처럼 해말쑥하고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그런데 생김새와는 달리 술을 많이 마시었다.

혁명가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이 좀 흠이었다. 우리는 그때 려관에서 밥을 같이 먹고 담화도 여러시간 하였다. 그가 간드러진 일본 ≪옥상≫의 말을 흉내내면서 천황을 비롯한 일본의 고위급군정인물들과 우리 나라의 매국 5대신을 걸죽하게 욕질하는 바람에 나는 담화도중 여러번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최효일은 남들이 보기 드문 미인이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안해와 함께 살면서도 가정생활의 재미같은 것에

➡

최효일

대해서는 꿈만하게 여기는 태평스러운 성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새색시같은 얼굴생김새와는 달리 혁명투쟁에서는 놀라울 만치 담이 크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

그가 일본인상점의 무기를 여라문정 빼내가지고 안해와 함께 고유수로 탈출해온 것은 카륜회의 직전이었다. 우리가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건설하기에 앞서 그 과도적 단계로 소규모의 군사정치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을 때여서 최효일의 탈출은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우리는 동무들의 보고를 통하여 혁명군을 결성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고유수에 가보니 실지로 대원명단과 무기가 다 마련되어있었고 결성모임장소와 모임참가대상자까지도 확정되어 있었다.

조선혁명군결성식은 1930년 7월 6일 삼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무기를 수여하기에 앞서 나는 간단한 연설을 하였는데 이 연설에서 조선혁명군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준비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치 및 반군사조직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조선혁명군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상비적인 혁명무력이 창건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조선혁명군의 기본사명은 도시와 농촌에 들어가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그들을 항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면서 무장투쟁의 경험을 쌓고 차차 무장대오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나가는 것이였다. 연설에서는 조선혁명군의 당면과업으로 항일무장대오를 꾸릴 수 있는 골간을 육성하는 문제, 혁명군대가 의거할 수 있는 대중적 지반을 꾸리는 문제, 무장투쟁을 벌이기 위한 군사적 준비를 충분히 갖출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는 조선혁명군에 제1대, 제2대, 제3대 하는 식으로 여러개의 대를 내왔다. 나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혁명군 대장으로는 군사적 경험이 많고 통솔력이 강한 리종락이 추천되었다.

어떤 력사가들 가운데는 국민부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과 우리가 고유수에서 조직한 동명의 조선혁명군을 같은 군사조직이 아닌가 하고 혼돈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부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 성원들 중에서 적지않은 사람들이 우리 혁명군에도 망라된 것만큼 그렇게 추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두 군사조직은 명칭이 같으면서도 서로 지도리념이 다르고 사명도 달랐다.

국민부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이라는 것은 국민부자체의 내적 모순이 그대로 반영되어 실제활동과정에 대립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그 명칭과 간부진영도 사흘이 멀다하게 뒤바뀌군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실체를 가려보기 힘든 형편이였다. 우리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은 공산주의리념에 의해서 지도되며 군중정치사업도 하고 군사활동도 하는 정치 및 반군사조직이였다.

조선혁명군을 결성할 때 우리는 명칭을 어떻게 달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론의를 하였다.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하는 무장력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름도 새 맛이 나게 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같이 열을 내여 토론에 참가하였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다. 나는 그때 국민부가 내온 조선혁명군의 명칭을 그대로 리용하여 우리 군의 이름을 조선혁명군으로 해야 한다고 그들을 설복하였다. ≪ㅌ·ㄷ≫를 결성할 때에도 민족주의자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공산주의 냄새가 나는 말은 붙이지 않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이라고 달았는데 우리가 조직하는 군대도 조선혁명군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으면 민족주의자들의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활동상 편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혁명군이라는 외피를 썼기 때문에 그후 우리 군은 실지로 활동에서 많은 덕을 보았다.

조선혁명군은 조직된 후 여러 소조로 편성되어 각지에 파견되었다. 국내에도 몇개의 소조가 파견되었다. 그때 우리가 혁명군 소조들을 조선에 파견한 목적은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꾸리고 국내혁명투쟁을 앙양시키자는 데도 있었지만 국내에서 무장투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보자는 데도 있었다.

우리는 조선혁명군결성식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리제우, 공영, 박진영을 중심으로 하나의 국내공작소조를 뭇고 그들에게 신갈파로 해서 랑림산맥을 타고 평안북도일대로 뻗어나가면서 광범한 대중 속에 혁명조직을 내올 과업을 주기로 하고 그 소조의 조장으로 리제우를 임명했다.

우리는 1928년에 이미 무송주변과 내도산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들에게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장백지구로 활동근거지를 옮기라는 과업을 주었다. 리제우는 그 과업을 받고 장백현 일대에 나가 군중을 조직에 묶어세우고 국내깊이까지 들락날락하면서 대중을 의식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였다.

우리는 형권삼촌을 조장으로 하고 최효일과 박차석 등을 망라한 또 한패의 공작소조를 국내에 내보내기로 하였다. 이 소조에는 장백에서 압록강을 건너 풍산과 단천, 함흥을 거쳐 평양부근에까지 진출할 과업을 주었다.

박차석이 이 조에 망라되게 된 것은 형권삼촌과의 우정때문이었다. 그는 길림시 주변의 농촌에서 교원의 간판을 가지고 지하사업을 하다가 1928년 가을에는 계영춘, 고일봉과 함께 무송일대에서 혁명조직을 내오는 사업에 참가하였다. 그 때 어떻게 되어서인지 박차석이 형권삼촌과 딱친구가 되었다. 삼촌이 국내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을 듣고 박차석도 같이 가겠다고 하기때문에 우리는 그 심정을 리해하고 그의 제의를 쾌히 받아들이였다.

활동구역으로 떠나간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도처에서 대담무쌍한 활동을 벌였다.

사평가와 공주령 일대를 활동구역으로 삼고 사업하던 조선혁명군 대원들 중에 현대홍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평가에서 군중공작을 하던 도중 체포되어 장춘으로 끌려갔는데 체포되는 순간 놈들의 눈을 피해 몸에 품고 다니던 무기를 동지들에게 넘겨주었다.

경찰은 무기를 감춘 곳이 어디냐고 하면서 그에서 야수적인 고문을 들이대였다.

현대홍은 어떤 철도역의 이름을 대면서 그 역근처에 있는 백양나무 밑에 파묻었다고 고백하였다. 탈출할 기회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 말에 귀맛이 바싹당긴 경찰은 현대홍을 기차에 태워가지고 그가 권총을 파묻었다는 곳으로 향하였다.

차가 한창 달리고 있을 때 현대홍은 손목에 채워진 수갑으로 호송경찰 두놈을 까눕히고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린 다음 혁명조직을 찾아 팔굽과 무릎으로 기어서 카륜에 돌아왔다. 카륜의 동무들은 현대홍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줄칼로 쓸어서 겨우 벗기었다.

그는 이처럼 무서운 시련을 겪고나서도 몸이 회복되자 다시금 공주령에 나가 활동하다가 이번에는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공주령은 일제가 중국에서 빼앗아낸 조차지여서 일본사람들의 관할하에 있었다. 현대홍은 법정투쟁도 잘하였다. 그는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고생하다가 일제의 야수적 고문에서 생긴 후탈로 세상을 떠났다.

공주령

리제우네 소조력량은 1930년대에 들어와 수십명으로 늘어났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 장백땅에서는 반일조직들이 련이어 태어나고 마을마다 학교와 야학이 생기고 웅변대회, 연예공연, 체육대회 같은 것이 자주 벌어져 사람들을 혁명적 열정으로 끓게 하였다.

일제는 이런때에 마적단으로 가장한 무장단을 들이밀어 조선인 부락을 하나 털어내는 연극을 꾸며가지고 리제우네를 유인해냈다. 그러나 사전에 우리가 마적단을 주의하라고 경고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놈들의 꾀임에 말려들어가지 않았다. 크지 않은 실갱이가 벌어져 얼마간의 부상자를 냈을 뿐 사건은 전면적인 전투로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그 후 리제우네 무장성원들은 마적단과 결탁된 반동군벌군대의 불의적인 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 박진영은 전투현장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리제우는 불행하게도 체포되었다.

리제우는 이 수치를 죽음으로 씻으려고 손발을 묶이운 상태에서도 식칼로 목을 찔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현장에서 일본경찰들의 손에 넘어갔으며 서울에 압송된 후 사형언도를 받고 옥중에서 인차 희생되었다. 공영은 만주지방의 반일운동자들을 유인랍치하려고 일제가 조작한 가짜공산주의자들과 통일전선을 하려다가 살해되었다. 우리가 공영, 리제우, 박진영 동무들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한 소식을 접한 것은 단천에서 농민들의 대중적인 폭동이 있은 직후였다.

련락원의 말을 들은 나는 한동안 마음을 수습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죄를 진 것 같아 머리를 들 수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던 독립군대원들로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맨 처음 실현한 사람들이었다. 리제우, 공영, 박진영의 비극적인 최후를 내가 그렇게도 가슴아파한 것은 카륜회의 결정을 집행할 유력한 국내공작소조 하나가 없어진데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싸우던 방향전환의 선구자들을 억울하게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공영

공영과 박진영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여도 제일 앞에서 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우리 어머니에게 몽상도 자기들이 입겠으니 나에게는 입히지 말라고 하였다. 열 네 살 밖에 안된 내가 몽상을 입으면 애처롭게 보일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 두사람은 3년동안 베감투를 쓰고 몽상을 입었다.

그 당시 독립군 훈련소는 무송시가에서부터 좀 떨어진 말리허라는 곳에 있었다. 공영은 한주일에 한두번씩 지게에 나무짐을 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리었다. 그의 안해도 두릅이나 참나물같은 산나물을 캐가지고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왔다. 때로는 공영이 쌀자루를 메고 올 때도 있었는데 그런 성의가 우리 집 살림에 적지 않음 보탬을 주었다.

어머니도 그들을 만나면 친동생처럼 허물없이 대해주었다. 어떤 때에는 친누이와 같은 위엄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따끔히 타일러주기도 하였다.

공영이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만주로 들어온 후 그의 안해는 벽동에서 별거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해인가 남편을 찾아 무송으로 들어왔다. 공영은 그때 제비국을 끓이다가 덴 안해의 화상자리를 보고 얼굴이 보기 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시큰둥해가지고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성이 나서 그를 막 꾸짖었다.

≪임자, 그게 제 정신을 가지고 하는 소린가. 남편을 만나보겠다고 불원천리 찾아온 안해를 금방석에 앉히지는 못할망정 같이 살지 않겠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망녕된 생각인가.≫

공영이란 사람이 원래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은 늘 진지하게 받아들이였다. 그날도 그는 우리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나서 잘못하였다고 사과하였다.

(내일 계속)

일화

군민일치

김정일장군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항일유격대와 민중사이에 발현된 옹군애민의 혁명전통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부응되게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키시여 군민사이에 혈연적뉴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히 다지도록 하시였다.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적군인정신이 온 나라에 파급되는 가운데 군대는 민중을 위하고 민중은 군대를 위하는 군민의 오가는 정이 날이 갈수록 두터워갔다. 전군의 모든 부대들에서 자기들에게 차례진 롱구공들을 들고 주둔지역의 학교들을 찾아 가 제국주의침략자들이 조국의 촌토를 0.001mm도 침범하지 못하게 할터이니 너희들은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뛰놀라며 아이들에게 넘겨 주는가 하면 농장마을에서 뛰쳐 난 소고삐를 잡고 수십리길을 걷고 걸어 끝내 주인들에게 돌려 주었으며 뜻밖의 일로 화재가 일어 가산이 모두 불 탔을 때 군대가 먼저 달려 와 더 훌륭한 새집을 지어 주고 살림살이에 필요한 크고작은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는것과 같은 미거들이 수없이 꽃 펴났다.

한편 민중들속에서는 처녀가 강행군길을 떠나는 군인들의 발이 얼세라 탐스런 머리태를 잘라 신발에 깔아 주고 사경에 처한 군인을 소생시키기 위해 수백명의 민중들이 피와 살을 바치겠다고 병원으로 달려 가며 온 가족이 달라붙어 10년도 넘게 수백마리의 집짐승을 길러 군인들에게 고스란히 보내주는것과 같은 옹군일화들로 답해 나섰다.

이러한 때인 1996년 12월 어느 날 **김정일**장군께서는 황해북도 은파군 양동마을의 평범한 농민들이 올린 편지를 받으셨다.

≪… 장군님,

저희들은 두석달분 식량을 떼여 군량미로 보내주어도 일없습니다. 식량을 절약해 먹고 밀과 보리를 전작으로 심고 남새도 심어 먹으면서 식량보탬을 하면 얼마든지 굶지 않고도 다음해 농사를 지을수 있습니다. 광복직후에 김제원농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애국미를 바치였다면 오늘은 우리가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더 많은 군량미를 보내겠습니다.…≫

후방의 자기들은 배를 곯아도 일없지만 조국의 안전을 지켜 선 군대가 배를 곯아서는 안된다는 이 절절한 원군기풍은 군대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온 나라 민중의 진정 그대로였다.

김정일장군께서는 군지휘일군들에게 그 편지를 가지고 군인들을 교양할데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동무들도 그 편지를 보았겠지만 그 편지에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지키고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가 잘 반영되여 있다고, 자신께서는 그 편지를 보고 커다란 힘을 얻었다고, 그 편지내용을 전국의 농장원들에게 다 알려 주었는데 그들속에서 좋은 반영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근로자들은 지금 양동협동농장 제7작업반 농장원들의 모범을 따라 군량미도 잘 보장하고 영농준비를 잘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고 있다고, 그 편지는 인식교양적의의가 매우 크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분의 가르치심에 의해 양동마을 농민들의 소박한 편지는 전군에 내려 보내지고 이를 계기로 군민사이에는 혁명적의리와 혈육의 정의 뉴대가 더욱 깊어졌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이러한 군민관계에서 군대가 그 채를 잡고 주도적역할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그분께서는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는것은 인민군대의 본성적요구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라고, 인민군대는 혁명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며 인민군대가 인민을 떠나서는 존재할수도 없고 적과 싸워 승리할수도 없다고, 인민군군인들을 우리 당의 군민일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 주며 군민관계를 더욱 두터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민중이 군대를 위해 하나를 바치면 군대는 민중을 위해 열백을 바쳐야 한다는, 군대가 민중을 위하고 도와 주는것은 의무이고 본분이라는 취지의 가르치심이라 하겠다.

군민사이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는 곧 단결이고 그 위력은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온 나라가 떨쳐 나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저지시키고 사회주의를 수호하며≪고난의 행군≫을 사회주의강행군으로 이전시키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 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여실히 과시되고 있다.

송시

세계의 거울

이준수

순결한 조선의 불꽃을
어떻게든 꺼보려고
꼭두각시 인형들과
허수아비들을 모두 내몰아
온갖 비방중상 공갈협박을 해도
천지가 살아 솟아흐르는 한
조선의 불꽃은 영원합니다
꼭두각시 나팔수들은
조선의 불꽃이 저러다가
아메리카 불꽃에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며
나발을 불어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조선의 저 불꽃이
인류생명의 불꽃이고
인류평등의 불꽃이며
인류사랑의 불꽃임을 알게 되리라
이 세상을 휘몰아치는
약육강식 태풍의 횡포 앞에
저 혼자 살아남으려고
무릎 꿇은 사람들아
이 세상 땀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의 한없는 탐욕 앞에
빵부스러기를 먼저 차지하려고
꼬리쳐 온 사람들아
칼이 되어
음모의 입술에 사정없이 꽂히려는
조선의 질경이꽃들을 보라!
화살이 되어
탐욕의 두 눈에 깊숙이 박히려는
조선의 푸른 솔잎들 보라!
죽어도 함께 살아도 함께
검은 심장들을 향해 폭탄으로 달려가는
조선의 불굴의 신념을 보라!
두 눈을 뜨고 보아라
부끄러운 양심으로나마 똑바로 보아라
아메리카의 거짓불꽃에 맞서
진실의 불꽃으로
새 세상의 불꽃으로 당당히 타는
세계의 양심, 세계의 거울
조선의 태양을 보라!

흠모

세계인민들은 귀국을 자기들의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존경과 흠모의 정은 그이께 드리는 축하편지에서도 뜨겁게 표시되고 있다.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이 실천적 모범으로 자기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가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이를 높이 칭송하고 있다.

시리아 작가이며 기자인 무함마드 미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아랍인민을 포함한 세계인민들은 조선노동당이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백절불굴의 혁명적 기백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해 나가는 위력한 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새 조국 건설과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영도하고 조선을 위력한 경제력과 찬란한 민족문화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 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 세계인민들은 귀국인민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을 찬양하고 있으며 귀국을 자기들의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정식화하신 ≪김일성주의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횃불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자주와 쁠럭불가담을 위한 프랑스연구소 위원장 레네 뽈 데뻬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고 조선을 우리 시대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참모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은 **김정일**각하, 당신의 꾸준하고 현명한 영도 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였습니다. 온갖 형태의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은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에 기초하여 제국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기아와 전쟁이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염원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실천적 모범으로 고무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신문 ≪에이쉬언≫정치주필 키스 벤네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신 당신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몸소 진두에서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조선노동당은 세계혁명의 전위대로서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 김일성주의 당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깜빠니야는 그 어느 때보다 우심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도가 계심으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저지되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마음과 이목은 프롤레타리아위업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요새인 혁명의 수도 평양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일혁명당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일에 부쳐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3일~15일

3월 15일은 애국적인 전위투사들이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로부터 38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날을 맞이하는 한민전 성원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통일혁명당 창당을 위한 투쟁의 그 나날들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1960년대 당시 이 땅에 조성된 정세는 반미, 반파쇼, 통일운동을 승리에로 향도할 새로운 주체형의 당, 근로민중의 전위당의 창당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국강점으로 각계층 민중의 애국투쟁은 날이 갈수록 대중적인 투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갔으며 그것은 마침내 1960년 4.19민중봉기로 이승만 독재정권을 매장하는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중의 이같은 대중적인 투쟁은 근로민중의 전위조직의 통일적인 영도를 받지 못한 탓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었고 결국 투쟁의 열매를 원수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민중이 오직 자기 전위조직의 영도밑에 투쟁을 벌여나갈때만이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때인 1961년 9월 애국적인 전위투사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광범위한 민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노동자, 농민의 독자적인 당을 창당해야 변혁운동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신 귀중한 가르치심을 접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국변혁운동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전위당창당의 필요성과 그 실현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가르치심은 투쟁의 진로를 찾아 암중모색하던 애국적인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에게 당건설의 뚜렷한 방향과 변혁운동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때로부터 통일혁명당의 지도핵심들이었던 김종태, 최영도동지를 비롯한 전위투사들은 위대한 주석님의 창당방침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투쟁속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사람들로 기층 당조직을 꾸리고 그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정신무장시키기 위한 활동을 알차게 조직, 전개해 나갔습니다.

전위투사들은 걸음마다 적들의 폭압이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어려운 시련의 고비를 넘고 넘으면서 창당의 조직사상적 준비와 대중적 지반을 축성해나갔으며 김종태, 최영도동지를 비롯한 전위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 마침내 1964년 3월 15일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모처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고 이 땅에서 하루빨리 미국의 식민지파쇼통치를 끝장내고 민족해방의 과제를 완수하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성취할 것을 당의 투쟁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정치적 활동과 대중지도전술 등 14개 항목의 투쟁임무도 심의, 규정했고 김종태, 최영도동지를 비롯한 여러 동지들을 창당준비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참으로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은 통혁당 창당위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 역사적인 전기로 됐습니다.

그후 창당준비위원회는 당의 지도핵심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서울시당위원회, 전라남도당위원회, 경상북도당위원회 등 지방당 조직들을 내오고 경향각지에서 창당의 조직사상적 준비를 가속화해 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저서들을 출판해서 산하조직들에 배포했고 또 당시의 당기관지로써 신문 ≪혁명전선≫과 잡지 ≪청맥≫을 발간, 배포하는 등 당원들과 근로민중을 의식화하는 작업을 줄기차게 벌여나갔습니다.

그리고 1964년의 3.24, 6.3투쟁과 8월 투쟁을 비롯한 대중투쟁에 적극 참가해 조직을 실천투쟁속에서 더욱 단련하고 확대강화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가열찬 투쟁의 불길속에서 마침내 1969년 8월 25일 통일혁명당은 자기의 역사적인 창당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혁명당의 창건으로 한국변혁운동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자기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 민중은 비로소 자기의 지향과 의사의 체현자, 대변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말로 통혁당의 창건은 한국변혁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승화시킨 역사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 땅의 애국민중과 더불어 우리 민중의 선봉에서 투쟁의 혈로를 함께 헤쳐 온 통일혁명당은 1985년 변천된 현실요구에 걸맞게 그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으로 개칭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애국적 전위대로써의 역사적 중임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통혁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38년간 한민전은 참으로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38년전 그날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던 전위투사들이 그처럼 바라던 자주, 민주, 통일의 염원은 오늘도 성취되지 못했고 미국의 식민지통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시미행정부의 출범이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대북적대시정책, 반북고립압살책동으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매우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의연히 난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성된 정세는 한민전 성원들과 각계 애국민중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해서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감으로써 올해에 민족의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적 요청에 부응해서 한민전 성원들은 우리 민중의 철저한 대변자이고 절대적인 지지자인 한민전을 강위력한 전위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각계층 민중을 그 주위에 굳게 묶어 세워 자주, 민주, 통일의 성스러운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한민전 성원들이 자신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투철히 정신무장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내외의 사상이론적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도핵심들의 역할을 부단히 높이고 대중과의 혈연적 유대를 강화해 한민전이 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내리게 하며 한민전의 지도밑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이 더욱 힘차게 벌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전이 어떤 역경이나 도전앞에서도 동요와 좌절, 비관을 모르고 오직 앞으로만 힘차게 전진하는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애국적 전위대로써의 중임을 다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사의 염원을 실현하자

노동자 농어민 시간 - 91 3월 13일~14일

3월 17일은 서울 신흥정밀회사 노동자였던 박영진열사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절규하며 위정당국자들과 악덕업주들의 착취와 억압에 항거해 분신한때로부터 1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맞으며 지금 우리 노동대중은 열사의 영전에 머리숙이며 그의 생전의 뜻을 실현할 굳은 의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박영진열사가 신흥정밀에 입사한 것은 1985년 10월이였습니다. 당시 신흥정밀노동자들의 처지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신흥정밀의 악덕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주면서도 공휴일도 쉬지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4시간이상이나 고된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뿐 아니라 악덕업주는 회사내 노조활동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사소한 생존권요구마저도 가차없이 탄압했습니다.

박영진열사는 자신과 노동자들이 당하는 이같은 착취와 억압, 고통을 그대로 감수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노동자들을 하나로 규합시키는 한편 현장 소식지를 직접 제작, 배포해 악덕업주의 착취와 압박을 폭로하고 노동3권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노동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회사측은 1986년 3월 14일 여기에 관계된 노동자 4명을 해고시키고 박영진열사에게는 출근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열사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항거해 계속 출근투쟁을 벌였고 해고자복직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굴함없이 싸웠습니다.

1986년 3월 17일 박영진열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회사측에 임금인상을 요구해서 집단투쟁을 벌일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리 내탐한 사측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사전에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했습니다. 이에 분격한 열사와 노동자들은 이날 낮 1시 회사식당을 점거하고 농성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같은 투쟁에 회사측은 더욱더 발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사는 자기 한몸을 불태워 노동자들을 투쟁에로 분기시키려는 비장한 결심을 품고 자기의 몸에 서슴없이 불을 달구었던 것입니다.

박영진열사가 노동자해방을 외치며 한점의 불꽃으로 산화한 때로부터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은 16년전의 그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한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됐고 비정규직이라는 직업아닌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노동환경속에서 살인적인 기아임금을 받으며 생계를 겨우 유지해가던 우리 노동형제들은 졸지에 생사기로의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삶의 권리와 초보적인 민주민권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된 이 땅에서 더 이상 살래야 살 수가 없어 썩고 병든 이 사회를 저주하며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은 오늘 우리 노동형제들로 하여금 16년전 분신한 박영진열사의 뜻대로 노동대중을 비롯한 근로민중의 초보적인 생존권과 민주민권을 위해서는 투쟁을 벌여야 하며 이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대중은 투쟁으로써 자신들의 삶과 민주민권을 지켜내야 할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형제들은 자신들이 투쟁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대중의 생존권은 그 누가 지켜주고 가져다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쟁취해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합니다. 많은 대중이 투쟁에 나섰다고 해서 승리가 마련되는게 아닙니다. 단결된 큰 힘으로 투쟁을 벌일 때 그 승리는 확정적인 것으로 됩니다. 특히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세계화책동이 어느때보다도 심한 오늘날 단결하는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연대연합을 강화해야합니다. 연대연합을 통해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확산될 때 보다 큰 승리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구조조정반대투쟁 등 산별, 지역별, 업종별간 연대연합을 통해 1300만 노동대중이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설 때 큰 승리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대중여러분, 16년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자기의 한몸을 서슴없이 불태운 박영진열사의 뜻을 받들어 투쟁에 분기해 나섭시다. 그래서 이 땅에 열사가 바라던 노동자가 주인되는 참세상을 기어이 안아와야 할겁니다.

참 애국의 현주소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3일~15일

얼마전에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이 한 모임에서 자기가 마치 큰 애국자나 된 것처럼 떠들어댄 적이 있다. 그때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민족을 배신하며 애국자라니 어디 될말인가고 하면서 그를 비난했다. 응당한 비난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회창처럼 매국배족을 일삼는 자들이 진짜 애국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애국에 대해 열창하는 것을 보았다. 과거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들이 그랬고 광복후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비롯한 파쇼독재자들이 또 그랬다.

애국에 대한 우롱이 아닐 수 없다. 애국심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며 헌신적 복무의 정신이다. 나라의 일목일초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애국이고 불우이웃을 돕는 일도 애국이며 민족의 안녕과 융성번영을 위해 혼신을 바치는 것도 애국이다. 그것이 다 고상하고 장려해야 할 일이지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개척하는 일, 민족과 민중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 해결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민족의 생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의 한몸을 바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애국, 가장 크게 평가돼야할 참애국인 것이다.

오늘에 사는 우리 겨레와 민중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애국, 참애국은 바로 조국통일을 위해 한몸 바쳐 싸우는 것이다. 그것은 조국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대의 염원이고 생활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민족분단으로 인해 우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그 불행과 고통은 쌓이고 쌓여 이제 더 쌓일 여지조차 없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민족분단은 더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조국통일이야말로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가장 절박하고 생활적인 민족적 위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애국중에서 가장 큰 애국, 참애국인 것이다.

그러면 오늘 참애국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새 세기 우리 민족의 앞길에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밝힌 등대이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그것은 남북공동선언이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목표, 그 실현방도를 뚜렷이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밝혀주고 있다. 이 민족자주의 원칙은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라는 자주성의 보편적 진리와 우리 나라 통일문제가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로써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 자체의 힘과 노력으로 이룩해야할 우리 민족 자신의 위업이라는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적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근본원칙으로 된다.

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함께 자주통일의 목표와 그 실현방도를 뚜렷이 밝혀주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것은 남과 북에 의연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그 어느 일방도 자기의 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하려 하지 않는 현실적 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기초위에서 낳은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강령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가장 빠르고 공정하게 그리고 순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애국애족의 통일강령이고 조국통일의 기치이다.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지난 1년 9개월간에 이룩된 성과들은 우리 겨레가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아갈때 조국통일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남북공동선언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 겨레와 민중은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해야한다. 여기에 바로 참애국의 현주소가 있는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태도는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우리 겨레와 민중이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입장과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것은 민족자주를 절대화하고 통일위업수행에 철저히 구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계 민중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철석의 의지와 입장을 갖고 외세가 우리 민족의 통일진군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북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이다.

최근의 사태들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우리 민족이 무서운 핵참화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계 애국민중은 반미투쟁의 봉화를 더욱 높이 치켜들어야 한다. 아울러 이회창을 비롯한 온갖 우익보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완강히 벌여야 한다. 이회창을 필두로 하는 우익보수세력의 반통일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애당초 6.15남북공동선언 자체를 인정하려하지 않는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우익보수세력은 철저한 상호주의, 검증 등을 떠들며 이북과의 접촉, 대화, 교류와 협력을 반대하고 남북관계를 공동선언발표이전으로 되돌려세우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회창의 사대매국적이고 반통일적 정체는 지난 1월에 있은 그의 미국행각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회창이야말로 극악한 반통일역적이며 희세의 사대매국노, 악의 수괴이다.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우익보수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고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각계 애국민중은 내외분열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수고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옹호관철함으로써 참애국자로써의 기개와 영예를 떨쳐야한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14일

차세대전투기사업 중단을 요구
민주노동당 등

민주노동당,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회당,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미국 전투기를 끌어들이려는 군당국을 규탄해 8일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방부가 에프15기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면서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6.15공동선언 정신을 이행해 평화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집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국방부가 국민의 바람과 군내부의 반발마저 짓밟으며 어떻게해서든 에프15기를 끌어들여 미국에 발라맞추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결의문은 군당국이 미국 전투기도입을 강행함으로써 한국의 대미군사종속을 더욱 심화시키고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과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의문은 만약 국방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투기를 끌어들인다면 그 관련자들은 과거 친미분자보다 더한 사대매국적 친미분자로써 역사의 심판과 민족의 반대를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국방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전쟁계획을 철회하라
전국연합

전국연합이 11일 미국은 ≪오만방자한 핵전쟁계획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방부가 올해 초 미의회에 제출한 비밀보고서가 최근 언론에 의해 공개된데 대해 언급하고 ≪세계 모든 위험의 근거지≫인 미국이 공격대상국을 정하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이용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사실이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핵전쟁위험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단죄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이 비밀보고서에 북을 비롯한 7개국을 미국에 위협을 주는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핵무기사용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소형 핵무기개발의 필요성과 연구계획, 그리고 핵실험재개 필요성도 덧붙이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미국이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살상국가임이 만천하에 입증된 것이라고 성명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부시행정부의 ≪전략무기감축계획≫이 모두 입발림뿐인 허위로 드러났고 방어수준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미사일방어체제 역시 핵무기선제공격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는 어마어마한 미사일공격체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성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뻑하면 협박하는 미국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은 미국은 전쟁계획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존재하는 한 지구상의 평화란 있을 수 없다, 미국은 더 이상 피를 부르는 살상정책을 거두고 모든 전쟁계획을 중지하라, 전 세계국가들은 오만방자한 미국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오만은 미국의 심장부에 깊숙히 꽂히는 또다른 대형참사를 예고할 뿐이다, 미국은 이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재고 요청

민가협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재고할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민가협 상임의장은 12일 민주당이 주최한 시민사회단체의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며 정부 여당은 법제정방침을 재고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정권 초기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노사정위를 시민단체를 포함시킨 노사민정위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대사관 반미연대집회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매향리미군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은 12일 제30차 미국대사관 반미연대집회를 갖고 부시정권의 핵무기사용계획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미국은 핵전쟁을 몰고 올 ≪핵 태세검토≫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 ≪미군기지 신설확장안인 연합토지관리계획 결사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이 낭독됐습니다. 결의문은 부시정권이 북을 비롯한 7개 나라를 잠재적 핵공격대상으로 지목하고 이 나라들에 대한 선제핵공격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핵 태세검토≫보고서라는 것을 지난 1월 미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이것은 기존의 핵억제전략에서 선제핵공격전략에로 전환하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14일

리두익차수 서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두익이 심근경색으로 주체91(2002)년 3월 13일 13시에 80살을 일기로 서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3일 그의 서거와 관련된 부고를 발표하였다. 부고에 의하면 리두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였다.

그는 광복후 혁명무력을 강화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보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전후 오랜 기간 인민군대의 중요한 직책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군사로선을 받들고 인민군대를 강화발전시키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쳤다.

조선미술작품전시회 미국 뉴져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술작품전시회가 조선미술가협회의 주최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의 뉴져시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조선화 ≪백두산밀영고향집≫, ≪정일봉≫을 비롯한 이름난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 성원들과 동포들, 유엔주재 조선대표와 대표부일군들이 전시회장을 참관하였다. 재미동포들은 우리 나라의 미술발전수준에 경탄을 표시하면서 이런 훌륭한 미술작품전시회를 자주 조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교포신문들과 방송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조선화 특별전시회가 열렸다≫고 하면서 전시회 진행소식을 보도하였다.

타이인사가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에 석재 기증

타이왕국 정부수상실 청년사업담당상 크라새 차나웡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 석재를 보내여 왔다.

지난해 10월 조선을 방문하였던 청년사업담당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안이야 말로 가장 정당하고 공명정대한 방안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였다. 이 석재는 그가 귀국한 후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의 표시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 기증한것이다. 석재에는 ≪조국통일3대헌장 만세≫라는 글발이 새겨 져 있다.

조선 자주적통일에 관한 토론회 빠리에서 진행

조선의 자주적통일에 관한 토론회가 창립 25돐을 맞이하는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의 주최로 9일 빠리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명예위원장들과 이 위원회의 일군들, 뛰르끼예, 스웨리예, 영국, 프랑스, 미국, 스위스, 벨지끄, 노르웨이 등 세계 여러 나라들과 지역들에서 온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반만년동안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 온 조선인민이 50여년동안 강요 당하고 있는 분렬의 비극은 조선민족의 단일성을 말살하며 조선반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전략에 의하여 산생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미행정부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요구대로 남조선강점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함으로써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의 환경을 마련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통일에 관한 빠리선언이 채택되였다. 선언은 6.15북남공동선언이 조선통일의 리정표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북남공동선언이 의연히 조선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데서 근본열쇠로 된다는것을 재확인하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에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미군을 남조선에서 당장 철수하며 새 전쟁도발과 무력증강책동을 포기함으로써 6.15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는데 기여할 것을 선언은 요구하였다. 우리는 세계평화와 안전과 직접 련결되여 있는 조선의 자주적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련대성활동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할것을 굳게 결의하면서 국제련락위원회의 발기로 진행되고 있는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국제적서명운동에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진보세력들이 적극 참가하기를 기대한다고 선언에는 강조되여 있다.

미국잡지가 부쉬의 발언을 비평

미국잡지 ≪뉴스위크≫ 2월 27일호는 미국대통령 부쉬가 조선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한것을 비평하였다.

잡지는 부쉬의 발언에 대해 미국내와 동맹국으로부터 랭랭한 목소리가 들려 오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잡지는 부쉬정권은 독단주의를 재검토해야 한다, 과격한 발언은 반미감정을 재연시킨다고 하면서 도처에서 반미감정이 커가고 있는데 대하여 렬거하였다.

잡지는 원래 ≪악의 축≫과 같은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였다.

팔레스티나피난민 수용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 규탄

≪로동신문≫ 14일부는 최근 요르단강서안지역의 여러 팔레스티나피난민수용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살인만행을 규탄하였다.

신문은 모든 국제법과 전시에 지켜야 할 국제관례들을 무시한 야만적인 공격행위는 이스라엘이야말로 테로국이며 중동평화의 암이라는것을 말하여 준다고 단죄하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인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테로공격과 학살만행을 그만 두어야 하며 중동평화를 가로 막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1면에서 계속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은 전쟁연습놀음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

조평통대변인 성명

현실은 미국이 떠드는 이른바 ≪대화≫니 뭐니 하는것이 완전히 거짓이며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그들의 야망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는것을 더욱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미제의 오만한 ≪힘≫의 정책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제의 모험적인 새 전쟁도발소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도발에는 강력한 보복으로 대답하고 불은 불로 다스리는것이 우리의 기질이며 대응방식이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와 복수심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하며 무모한 전쟁연습놀음을 무조건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

만일 미제와 그 주구들이 끝끝내 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 이 땅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 도발자들을 완전히 쓸어 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숙원을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이 시각에 해내외의 전체 조선인민은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전쟁의 재난을 몰아 오는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호전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 과감히 벌려 나가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막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선에 대한 부쉬의 위협은 세계에 대한 위협

세계 여러 나라 정당 지도자들은 미국대통령 부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호전적인 망발을 계속 늘어 놓으며 전쟁의 불을 지피려 하고 있는데 대해 단호히 규탄하면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 전문을 보내여 오고 있다.

레바논공산당 총비서 파루끄 다흐루즈는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최근 ≪년두교서≫라는데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걸고 들면서 이 나라들의 자주, 독립의 원칙, 인민들의 발전의 선택권을 말살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으며 이 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위험한 적대시정책을 준렬히 규탄하며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 조선로동당에 대한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한다.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알렉싼드루 빤따지는 최근 부쉬행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호전적인 발언들을 계속 늘어 놓으면서 새로운 세계대전의 불을 지피려 하는것은 세계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현 미행정부는 아직까지도 지난 시기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로므니아공산당은 미국의 군사적위협을 견결히 규탄한다.

스웨리예공산당 위원장 롤프 하겔은 지금 조선뿐아니라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부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라크, 이란에 대한 위협을 규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격은 평화와 민주주의, 국제법에 대한 공격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대통령의 위협은 우리모두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

뜻 깊은 올해에 군민일치사상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자

로동신문 - 주체91, 1월 15일

민족최대의 명절들을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한 새해의 총 돌격전이 벌어 지고 있는 우리 조국땅우에 군민대행진의 장엄한 화폭이 펼쳐 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21세기의 첫해를 빛나게 장식한 승리자들의 발구름소리가 온 나라를 진감하고 있다.

우리 혁명과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혁명적경사가 겹친 뜻 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충천하고 용기는 백배하다.우리는 군민일치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강성대국건설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감으로써 올해를 옹군애민사상만세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 군민대행진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의 옹군애민사상은 군대는 인민에게 의거하고 인민은 군대를 지지하고 원호하며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해 나갈데 대한 사상이다.천만군민이 한덩어리로 뭉친 힘을 당할 자는 세상에 없다.옹군애민사상에는 우리 혁명대오를 그 어떤 정세와 조건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강력한 성새로 다지고 조국번영의 새 시대를 펼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가 구현되여 있다.

올해의 군민대행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받들고 이 땅우에 강성대국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 놓으려는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 같은 사상감정의 폭발이다.

올해에 우리는 주체사회주의의 시조이시며 건군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이하게 된다.주체혁명의 앞길에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펼쳐 지고 있는 벅찬 시기에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전환의 시원을 열어 놓은 민족최대의 혁명적명절들을 동시에 맞이하게 된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크나큰 영광이고 행운이다.

우리 혁명의 력사는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하고 민족번영의 시대를 개척해 온 긍지 높은 력사이다.발톱까지 무장한 간악한 일제를 타승하는 싸움에서도,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쳐 부시는 투쟁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마음한뜻이였고 전후 재더미우에서 일떠서던 나날에도 군민은 일심일체였다.군민일치, 옹군애민이야말로 오래고도 간고한 투쟁속에서 형성되고 공고발전되여 온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군대를 친혈육과 같이 사랑하는 인민, 인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는 군대가 있었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굴복시킬수 없었고 우리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력사의 새 세기를 개척해 나가는 장엄한 진군길에서 우리 혁명군대와 인민은 사상과 지향도 하나이고 운명과 미래도 하나이다.우리 나라에서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혁명동지로, 전우로 되고 있으며 군민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도와 주는것이 전 사회적풍조로 되고 있다.군민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투쟁기풍으로 숨결을 같이 하고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이러한 풍모는 그 어느 사회, 그 어느 군대와 인민들에게도 찾아 볼수 없다.

지금 우리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옹군애민사상만세소리 높이 군민대행진으로 올해의 혁명적명절들을 뜻 깊게 맞이하며 선군시대를 끝없이 빛내여 나갈 불 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

오늘의 군민대행진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전군, 전민이 하나로 뭉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주체강국의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다.우리가 20세기 마지막년대에 제국주의자들의 류례없는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도, 오늘 우리 조국이 그 어떤 원쑤도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 떨치고 있는것도 군민이 혈연적으로 뭉친 위력이 있기때문이다.

단결만 있으며 천만대적도 이기고 천하를 얻을수 있다.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군민이 뜻을 같이 하고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위대한 단결의 대풍모를 더욱 활짝 꽃 피워 나갈 때 우리 조국은 새 세기에도 영원히 주체강국의 위력을 높이 떨칠것이며 우리 혁명은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힘차게 전진해 나가게 될것이다.

옹군애민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군민의 총력으로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우리의 강성대국은 군민일치의 위력으로 건설되는 21세기의 강국이다.멀지 않은 앞날에 이 땅우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 없이 사는 무적필승의 나라를 일떠 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대규모의 토지정리사업도, 현대적인 생산기지를 꾸리고 경제를 추켜 세우는 사업도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내밀고 있다.

우리는 시련속에서 다져 진 군대와 인민의 단결된 힘을 천백배로 높이 발양시켜 전면적개화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에 그러했던것처럼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옹군애민사상만세소리 높이 울릴 때 이 땅우에는 불가능과 좌절을 모르고 끊임 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 가는 영웅조선의 혁명적기상이 힘 있게 나래치고 강성대국건설에서는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전횡과 강권행위는 날로 우심해 지고 있다.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조국땅우에는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일치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단결은 제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군사적압력과 도전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게 하는 만능의 무기이다.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의 의도대로 군민일치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뜻 깊은 올해를 군민대행진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병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의 모범을 따라 배워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력사가 알지 못하는 인간사랑의 최고귀감이시다.병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위인적천품이며 장군님의 혁명활동력사는 언제나 군대와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숭고한 사랑의 력사로 수 놓아 지고 있다.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 병사들의 생활조건부터 일일이 알아 보시는분이 바로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이시며 우리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한 생활에서 제일 큰 기쁨을 찾으시는분이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우리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위대한 풍모를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병사들과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폭풍치는 바다길도, 수천리 눈보라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뜨거운 인정미와 무한한 헌신성, 모든 사색과 실천의 첫 자리에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을 놓고 그들에게 가장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마련해 주는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여기시는 숭고한 인생관, 이것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위인적풍모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열렬한 동지애, 인간애를 따라 배워 온 나라에 혁명적사랑의 대하, 군민일치의 대화원을 펼쳐 놓아야 한다.누구나 다 군대는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고 인민은 군대를 성심성의로 돕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드는 참된 길이라는것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서 전군, 전민이 하나의 동지로 되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불패의 위력이 있다.

우리 혁명의 각이한 년대기마다 높이 발휘되였던 옹군애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적극 살려 나가야 한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심화발전되여 온 옹군애민의 전통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재보이다.옹군애민의 전통에는 오늘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따라 배워야 할 귀중한 진리와 경험, 실천적모범이 깃들어 있다.

천고밀림속에서 심한 식량부족으로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인민들의 재산에 손 한번 대지 않았던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와 유격근거지를 자기 삶의 전부로 생각하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유격대원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 나섰던 처창즈인민들의 불굴의 투쟁기풍,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용사들의 영웅적인 희생정신과 싸우는 전사들을 위해 불비 쏟아 지는 고지로 탄약상자를 실어 나르던 후방인민들의 원군기풍을 따라 배워야 한다.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창조된 옹군애민의 전통을 더 활짝 꽃 피워 나가야 한다.인민군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안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우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여 들던 그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해 나가야 한다.전체 인민들은 통강냉이와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원군의 길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던 그때처럼 인민군대원호를 일상적인 사업으로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만난을 뚫고 나가는 우리 사회의 자랑찬 풍모를 활짝 꽃 피워 나가야 한다.

온 사회에 우리 군대제일주의정신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정치사상공세를 힘 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는 우리 인민이 오랜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심장으로 새긴 드팀 없는 신념이다.전체 인민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군대로 빛을 뿌리고 있으며 주체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자랑 떨치고 있는 우리 군대에 대한 한 없는 긍지감을 간직하여야 한다.전 사회적으로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인민들은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들고 나가며 인민군장병들은 우리 인민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갈 때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련계는 백방으로 강화되게 될것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는 끝없이 빛나게 될것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필요한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원군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우리 초소－우리 공장≫, ≪우리 초소－우리 농장≫, ≪우리 초소－우리 학교≫운동을 힘 있게 벌려 온 나라에 옹군애민의 기풍이 차넘치게 해야 한다.

지금 온 나라에는 군대와 인민이 어깨겯고 마음 맞춰 부르는 ≪군민아리랑≫의 노래가 올해의 총 돌격전의 진군가로 높이 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군민이 함께 걷고 함께 전진하는 올해의 총 진군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두다 옹군애민사상만세를 높이 부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맞는 뜻 깊은 올해를 반만년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군민대행진의 해로 빛내여 나가자. (끝)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음악의 새 시대 개척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20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14일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음악의 새 시대를 개척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세계의 군건설 역사의 어느 갈피에도 선군음악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군사사전이나 예술사전에서도 선군음악이라는 용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군정치, 선군혁명영도와 함께 선군음악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 공화국이 유래없는 시련과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고 있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펴 나가시면서 우리 혁명의 주력군인 조신인민군의 혁명적 예술을 우리 시대 음악의 본보기로 내세우시고 그것을 무기로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을 강성대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세계 정치사와 군건설역사, 음악예술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선군음악의 새시대를 개척하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역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충실하고 시대의 사명에 이바지하는 음악만이 참다운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선군음악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선군음악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본 정치 방식인 선군정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음악이라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군음악의 특징의 기초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의 음악관이 놓여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주체의 음악관은, ≪음악은 정치에 복무해야 하며 정치가 없는 음악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고 음악이 없는 정치는 심장이 없는 정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주체의 음악관에 기초하시여 우리 시대 음악이 선군정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선군음악으로 되게 하시고 그 위력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처럼 어려운 시기 강성대국 건설의 진군로를 열어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선군음악이 시대의 장엄한 진군가로 울려퍼지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노래로부터 시작되고 노래와 함께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전통을 구현하여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혁명은 노래로부터 시작되였고 노래속에서 전진하였으며 노래와 함께 승리하여 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열 네 살 어리신 나이에 압록강을 건너시며 부르신 ≪압록강의 노래≫로부터 시작된 우리 혁명은 ≪조선의 노래≫, ≪반일전가≫≪, 사향가≫의 노래속에서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해 왔으며 ≪축복의 노래≫, ≪조국의 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과 같은 수령숭배의 노래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영도의 역사를 이어오시는 나날에도 노래로써 승리의 앞길을 열어나가셨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미제가 1976년에 판문점 사건을 조작하여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날뛰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제가 기어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놈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노래로 선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송으로 노래 ≪우리는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를 먼저 내보내고 뒤이어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조선인민군가≫이런 순서로 내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방송에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이 힘차게 울려나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먼저 내보내도록 하여주신 노래 ≪우리는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는 전투태세에 들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에 전체 인민군대와 인민들이 ≪알았습니다≫라고 힘있게 대답올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보내도록 하여주신 노래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는 이미 전호를 차지하고 돌격명령을 기다리는 수백만 전사들의 심장의 목소리였고, 노래 ≪조선인민군가≫는 적진을 향해 돌진해나가는 인민군대의 돌격의 함성이였습니다.

우리의 힘찬 노래포소리에서 핵무기나 원자탄보다 몇백배로 위력한 힘을 느낀 적들은 부랴부랴 우리 나라 앞바다에 들이밀었던 기동타격함대를 걷어가지고 꽁무니를 뺐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음악군사전략, 음악군사전법이 가져다 준 통쾌한 승리였고 세계전쟁사에 대서특필할 또 하나의 기적이였습니다.

참으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역사가 수백년을 헤아리지만 조선혁명처럼 노래와 더불어 개척되고 승리해 온 혁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조선혁명의 자랑이고 고귀한 전통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조선혁명의 전통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변함없이 계승해 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선군음악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의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나가신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 시기 시대의 장엄한 진군가로 울려 퍼지도록 하신 것은 둘째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짚으시고 강성대국 건설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 21세기 인류음악의 참된 가치를 밝혀주신 희세의 정치가, 위대한 예술가 바로 여기에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의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는 환경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강경보루인 우리 공화국의 강성대국 건설을 파탄시킬 목적으로 우리에 대한 사상정신적 와해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퇴폐적이고 염세적인 노래들을 들이밀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이러한 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사상진지를 강화하자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로 온 사회를 꽉 채워 적들의 반동적인 노래가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대중을 강성대국 건설에 불러일으키는 좋은 노래들을 창작하는 것과 함께 음악을 선군정치와 결합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이 선군정치를 정서적으로 안받침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들고 전진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시대에 이바지하는 음악은 마땅히 선군음악이어야 한다는 것을 통찰하시고 이 땅우에 선군음악의 새시대를 펼치시여 그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공세를 짓부시고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 활로를 열어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음악의 새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영도하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을 선군정치의 위력한 나팔수로, 힘있는 무기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으로 영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거의 매달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수시로 창작가, 예술인들을 친히 만나시여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나 최고사령관을 따라 전선과 후방에서 활동할 수 있게 대형버스와 식당차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자신께서 몸소 공훈합창단을 데리시고 인민군전사들과 각지의 노동계급을 찾으시여 최고사령부의 혁명군가로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 주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으로, 군인가족예술소조활동에 새 역사를 창조하시여 선군음악시대를 더욱 빛내여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가족들을 예술소조활동에 많이 참가시키면 그들을 혁명화하는데도 좋고 전군의 혁명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좋으며 강성대국건설로 들끓는 온 사회에 낙천적인 생활분위기를 세우는데도 좋을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이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가족예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제2의 선군나팔수로 내세우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해마다 조선인민군 군인가족예술소조 경연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친히 그들의 공연도 보아주셨을 뿐 아니라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전국에 공장, 기업소들을 순회공연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선군음악영도에 의해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공화국에서는 수령결사옹위의 노래, 혁명적 열정과 낭만의 노래가 차 넘치게 되였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는 선군정치와 함께 선군음악으로 우리 혁명무력에 불패의 위력을 강화하고 빛내여 온 음악서사시적인 불멸의 영도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청강생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저술가형의 정치가도 있었고 웅변가형의 정치가도 있었지만 음악가형의 정치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요의 왕, 교향곡의 거장으로 불린 음악가는 있었지만 정치가형의 음악가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음악과 함께 내려오면서도 ≪진정으로 참다운 음악은 어떤 것으로 되여야 하는가≫하는 그런 음악의 근본문제에 해명을 주지 못한 채 흘러온 역사의 제한성과 관련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은 있었지만 위인중에 위인이 출현하지 못했던 세계 위인계의 공백이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숙제로 남겨놓았던 이 공백을 빛나는 예지로 매꾸어 주신 분이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세계 정치사에 처음으로 선군정치라는 새로운 정치방식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 그리고 21세기 인류음악의 참된 가치를 밝혀주신 희세의 정치가, 위대한 예술가. 바로 여기에 세계가 공인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시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가 경제건설의 중요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F-15K, 라팔 다 필요없다

≪라팔이 F-15K보다 성능이 좋다고 도입하자는게 아닙니다. F-15K든 라팔이든 다 필요없으니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자체를 백지화해야 합니다.≫

이승헌 민주노동당 자주통일국장은 15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열린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 중단촉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혈세로 전쟁무기를 도입하려는 F-X사업 자체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과정에서 국방부의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대령의 즉각 석방과 F-X사업 전면 철회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은 ≪우리는 신원이 명확하고 도주위험이 없는 조주형 대령의 석방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무기도입을 중단하고 군축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주최측은 ≪국방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15K를 고집하면서 자주권이 없는 미국의 하수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기자회견문은 ≪F-15K 도입사실에 미국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히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시기에 전쟁무기도입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통일의 기운을 꺽는 것≫이라며 F-X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결의문 낭독에 이어 서경원 자통협 상임고문은 규탄연설을 통해 ≪지금 국방부에서는 미국과의 작전 운용능력을 구실로 F-15K를 도입하려 하지만, 미국은 우리 국민의 안보와 생명을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50여년 전 이 땅을 갈라놓은 3.8선을 그은 나라≫라며 미국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경원 상임고문은 ≪지금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사이에서도 미국이 30년된 고물 비행기를 우리나라에게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있다≫며 ≪국방부는 무기도입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참가자들은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접수시키고 29일로 예정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일까지 더욱 힘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동계올림픽 편파판정으로 높아져있는 국민들의 반미감정과 조주형 대령의 국방부 외압폭로등 안팎으로 비판여론에 시달리고 있는 차세대전투기 기종선정이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3/15

6월선거 316명 출마 04년 원내진출

민주노동당, 창당 2주년을 맞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이 내일(16일)과 모레(17일) 연이어 중요한 행사를 연다. 내일은 2002년 정기 당대회, 모레는 창당 2주년 기념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정기 당대회에서는 당 대표단 선출, 2002년 양대 선거 기본방침 확정, 2002년 사업계획안 심의, 당헌 개정 등이 논의된다. 가장 눈겨여볼 대목 중 하나는 역시 당 대표 경선이다.

현재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는 권영길 현 대표와 정윤광 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등 2명. 620여 명 대의원들의 직접 투표로 1명의 당 대표를 뽑는다. 두 후보는 지난 9일부터 전국 순회유세중이다.

또한 부대표단 경선에는 최순영(1기 부대표), 천영세(1기 사무총장), 김혜경(1기 부대표), 김태일(1기 부대표) 등 4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당 사무총장 후보로는 노회찬 서울시지부장이 단독출마한 상태.

민주노동당은 이번 당대회의 의미에 대해 ≪2000년 1월 30일 창당 이후 2000년 4·13 총선을 거치며 당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당의 국민적 입지를 마련한 지난 1기를 평가하면서, 다가오는 2002년 양대 선거에서 전국적인 성과를 거두고 나아가 2004년 총선에서 반드시 원내 진출을 이룩할 수 있는 총제적 전망과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당원 전체가 결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그 동안 당활동의 성과에 대해 ≪창당 당시보다 당원이나 지구당 수가 3배나 늘어나는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이자제한법과 같은 정책활동을 통해 기존의 정책정당과는 다른 정책정당의 신선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선보였다≫고 자평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용산미군기지 반환,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 국민적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한 정치캠페인을 펼쳐왔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0년 1월 30일 창당 당시 8000명의 당원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현재(2002년 3월 16일 현재)는 2만2000명으로 늘어나 2.75배가 증가하는 조직적 성장을 거두었다. 당원을 계층별로 분류한 결과 역시 노동자가 1만2540명(57%)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농민 88명(0.4%), 자영업자 1012명(4.6%) 등으로 나타났다. 지구당 수도 34개 지부에서 94개 지구당으로 늘어났다.

민주노동당이 그 동안 펼쳐온 정책사업은 다음과 같다.

1)현행 ≪전국구 선출방식≫ 헌법 소원:
헌법 소원 승소(지방선거 1인 2ㅣ표 도입과 기탁금 인하 효과)
2)상가임대차보호법:
2001년 12월 국회통과
(시행령 2003년 1월 시행)
3)이자제한법:
입법청원 후 쟁점 형성
(국회재경위 ≫대부업법≫ 통과)
4)경영참가법:
입법청원 후 여론화
(의원입법 발의 추진중)
5)부패방지법:
2001년 6월 국회 통과
(국민 5만명 서명운동)

민주노동당은 또한 용산 미군기지 반환·MD반대 80회, 장애인이동권·테러방지법관련(≪인권≫) 30회, 노동법·호주제 폐지·성매매금지 50회 등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통해 ≪평화≫ ≪인권≫ ≪여성≫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까지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는 총 316명. 서울·울산·부산·인천·경기 등 5곳에 광역단체장 후보도 출마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14명, 광역의원 128명, 기초의원 217명이 출마한다. 이상현 대변인은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가능한 한 많이 출마시킬 것이며, 범진보진영과 범시민사회단체 단일후보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사회당과 중복출마를 피하는 연대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동당 출신 기초단체장은 이영순 울산 동구청장과 조승수 울산 북구청장 등 2명이다.

구영식기자
오마이뉴스 2002/03/15

공무원노조 16일 출범식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공노준)는 16일 오후 6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대의원과 회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출범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이 단체는 앞으로 구성되는 전국 광역시.도단위 공무원노조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노준을 이끌어온 이정찬 전북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총연맹위원장 선거에 단독출마, 당선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4일 공무원노조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단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15일 1차로 조합원 가입서명을 완료한 결과 6만5천715명이 가입, 노조 출범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련은 24일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지부로 하고 이들 지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킨 뒤 새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인 마당에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하는 공무원이 불법단체를 결성하는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공무원노조 출범식 주동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2/03/15

고이즈미 방한 앞서 투자협정반대 시위

투자협정 · WTO 반대 국민행동, 투자협정체결은 경제예속 심화 주장

지난 1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투자협정과 자유무역 협정이 결과적으로 초국적 자본에 우리 나라 경제를 종속시킬 것이라는 시민 · 사회단체들의 우려를 뒤로한 채 ≪한 · 일 투자 협정안≫ 체결을 의결했다.

투자협정 · WTO 반대 국민행동은 12일 서울 명동 한빛 은행 앞에서 집회(사진)를 열고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정부가 진정한 국민의 정부냐≫고 규탄하며, 투자협정 · 자유무역 협정 체결 시도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산업자원부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 주식 시장 40% 이상이 초국적 기업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상태.

국민행동은 ≪대외 종속이 심한 이 시점에서 해외투자자들의 권리가 자국국민의 권리보다 우선시 되도록 하는 투자협정 체결시, 우리 정부는 해외투자자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통제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들이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를 자행해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또 ≪현재만 해도 노바티스라는 초국적 기업의 횡포로 생명의 약 글리벡이 백혈병 환자들에게 죽음의 약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협정이 맺어진 후에는 더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발전노조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 항만노조의 나카무라씨가 이날 집회에 우연히 참가하게 됐다. 나카무라씨는 자신도 일본에서 투자협정과 관련, 한-일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열심히 싸우라≫는 메시지를 전달,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투자협정 · WTO 반대 국민행동은 21일 방한 예정인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한 · 일 투자협정안에 공식 서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투자협정을 반대하는 국민의 의사 전달을 위해 1백만인 서명운동 등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15

이회창 땅투기 의혹

민주당은 15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난 71년 매입했다가 96년말 매각한 이희호 여사 명의의 화성 땅 문제를 또다시 제기하는 등, 양당 간에는 때아닌 땅투기 논란이 한창이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이 총재는 지난 87년 12월 초임 변호사 시절에 지금은 신흥개발지역으로 떠오른 판교. 화성지역(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산 273번지)에 7천200평 규모의 임야를 구입했다≫며 임야대장 사본도 공개했다.

장 부대변인은 ≪시가 14억원이 넘는 화성땅을 묻어두고도 ≪돈이 없어 사돈집에 얹혀살고 있다≫는 이총재 말은 거짓말≫이라며 ≪한나라당은 선산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가족묘지 조성은 3백평 이내로 되어있으므로 이총재는 투기성 구입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총재는 89년 화성, 판교지역이 포함된 5개 지역 신도시개발 발표보다 2년여 앞서 땅을 매입했는데, 이는 개발계획을 미리 빼내거나 복부인의 자문을 받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또 ≪이총재외에도 한나라당에는 주진우(태안읍 송산리 일대 10,238㎡), 이상득(화성군 통탄면 석우리 4,484㎡), 신현태(태안읍 안녕리 3,967㎡), 강인섭(비봉면 남전리 2,440㎡),서정화(태안면 안녕리 1,984), 임태희(판교동 1,216㎡), 박종희(화성군 매송면 어천리 736㎡)의원과 이환의(태안읍 안녕리 23,167㎡)전 의원등 투기성 부동산을 소유한 의원이 유난히 많아 ≪부동산투기당≫으로 불려도 지나침이 없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김성식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을 통해 ≪화성 땅은 이총재가 15년전 ≪선산용≫으로 매입한 뒤 전매하지 않은 채 법에 따라 재산공개를 해왔던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반박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정작 민주당은 이희호 여사 명의의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소재 땅에 대해서나 부끄러운 줄 알라≫며 DJ 일가의 화성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DJ는 7대 대선(71.4.27)에서 패배한 지 두달 뒤인 71년 6월25일 이 땅을 매입했다≫며 ≪선거자금을 남겨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DJ는 92년 14대 대선직전에 그 땅을 장애인에게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약속을 깨고 아태재단에 넘겼다가 팔았다≫며 땅 매각대금을 장애인에게 돌려주라고 주장했다.

손봉석기자
프레시안 2002/03/15

≪나홀로 시위≫ 금지 추진

정부 집시법 개정방침…시민단체 큰 반발

정부가 불법 · 폭력 시위에 따른 국민생활 피해를 막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나홀로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집회시위의 자유와 보장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의 집회시위가 불법 · 과격 양상을 띠면서 국민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집시법을 개정해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새 집시법에는 특정지역에서 집회를 장기간 독점하기 위한 집회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고, 집회신고를 해놓고도 실제 집회를 열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고성능 확성장치를 사용해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도심지 집회와 행진, 거리소통을 방해하는 ≪나홀로 시위≫ 등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나홀로 시위≫는 각종 제재규정이 많은 기존 집시법을 피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들어 즐겨 사용해온 시위방법으로, 법개정 추진 방침에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연대사업국 홍석인 간사는 ≪나홀로 시위가 그동안 평화시위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시민사회단체가 1년여의 준비 끝에 마련한 집시법 개정안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경찰 논리만 받아들여 관련법을 개악할 경우 전면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홀로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패기와 열정은 가둘 수 없다

한총련 합법화 위한 범사회 대책기구 설명회

범사회적대책기구 결성에 즈음한 사회단체 설명회

≪한때 한총련에 몸담았던 선배로서 한총련 이적규정은 저에게 짐으로 남아있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철회시킬 것입니다.≫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이하 대책기구) 결성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는 이창희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간사는 사업계획 설명을 자신에 대한 다짐으로 마무리지었다.

10기를 맞이하는 한총련의 역사를 함께 해온 많은 사람들은 이적규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총련에게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적규정의 굴레에서 기본적인 활동조차 제약받고 있는 한총련의 자유를 위해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민족민주사회단체 인사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14일 오후 6시 향린교회에서는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 결성에 즈음한 사회단체 설명회≫가 사회단체 각계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권오헌 민가협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라고 운을 뗀 뒤 ≪사회 각계의 많은 어르신들이 한총련에 애정을 가지고 꾸짖을 것은 꾸짖지만 탄압에 대해서는 함께 싸워나갔으면 한다≫고 이적규정 철회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한충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31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위한 범사회대책위에 대한 첫 논의 이후 지금은 청년, 노동자, 농민, 의사, 약사, 변호사 등 한총련 이적규정에 동의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대책위에 참가하고 있다≫고 그간의 활동을 보고했다.

대책기구는 이후 활동계획으로 △3월 20일 대책위 1차 발족 △UN인권위 제소 △한총련 출범식 기간 범국민한마당 개최 △대선후보 공약 제안 등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현 한총련 간부가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서진수라고 이름을 밝힌 이 간부는 ≪한총련이 이적규정 철회활동을 제대로 못해 부끄럽지만, 많은 사회단체 어르신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많은 힘을 받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서진수씨는 ≪한총련의 모든 활동이 정당했다고 강변하고 싶지는 않지만, 젊은이들의 패기와 열정을 이적규정에 가두어두는 것은 사회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대책기구는 3월 20일 1차로 정식 발족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한총련의 활동과 각계인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한총련 이야기≫ 발간, 한총련 세대 홈페이지 구축 등의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3/15

대학내에서 정치활동 하지마라(?)

중앙운영위원회의 거수결과. 사회당,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학내 활동을 금지하겠습니다. 딱!딱!딱!

지금 나온 이 말은 학교당국의 결정이나 공안당국의 발표가 아니다. 놀랍게도 학우들의 자유로 운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총학생회의 결정이다. 자, 이제부터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자.

진보정당이 최근 몇 년동안 속속 창당을 하였다. 그 중 사회당과 민노당은 대학사회내 진보세력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전국적으로 학생위원회가 건설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3월 11일 울산대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를 통해 사회당 · 민노당 학생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3월 11일 울산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학내에서의 사회당/민노당 학생위원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과 함께 이틀 후인 3월 13일 저녁 울산대 내에 있던 사회당 · 민노당 학생위원회의 게시물이 총학생회 측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었다.

총학생회 내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3월 4일 있었던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였다. 이날 이 사안이 안건으로 채택된 것이다. 당시 운영위원이자 민노당 당원으로 있던 강미라(법학 97,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씨 등이 ≪일단 학생위원회 측과의 설명회를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제안, 일주일 후인 3월 11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회당 울산대 학생위원회≫ 위원장 엄균용(사회학과 95) 씨가 참가한 가운데 설명회가 있었다.

그리고 몇분 후 엄균용 씨가 퇴장한 가운데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거수를 통해 ≪사회당 · 민노당 학생위원회의 학내 활동을 금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인문대, 사회대, 총여학생회장외에 모두 비운동권 학생회였다는 점에서 뻔히 결과가 보이는 회의였다.

이 결정이 내려진 후 예상 외로 11,12일 양일간 학내는 조용했다. 총학생회측은 양당 학생위원회에 대한 아무런 공고나 통보가 없었다. 그런데 난데 없이 12일 저녁, 총학생회 측에 의해 양당 학생위원회의 주요 게시물은 학내에서 철거되었다.

정당법 55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앞으로 울산대 사태는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는 3월 4일부터 11일 일주일 사이에 중앙운영위원회라는 좁은 공간에서 학우대중의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총학생회의 사이트 어느 곳을 찾아가더라도 학우들의 학생위원회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올라온 글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진보정당 학생위원회에 대한 문의는 학우들 사이에서 종종 접할 수 있었다.

정당법 55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1항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 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도 제 1항에 규정하는 형에 처한다.[본조신설 93. 12.27]≫라고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울산대 사태는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철거된 플래카드

철거된 대자보

제55조 (창당방해등의 죄)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는 7연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에 처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30조 (활동의 자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울산대 정상훈 기자
유뉴스 2002/03/14

청년학생대중조직의 민주주의적 운영에 대하여 (1)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2호)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이며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이며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은 사회주의정치생활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본방도로 됩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인민대중자신의 정치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전체 인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집대성하여 정책을 세우고 인민들자신이 주인이 되여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며 사회공동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옳게 결합시켜 다같이 원만히 보장하는 여기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우월성이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주관주의,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경제적 협의제를 강화하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인민대중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여야 합니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를 적극 옹호하며 그들의 창조적 의견을 존중하고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일성**주석 1988 9 9)

≪정권은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수단이며 정권에 의하여 정치생활이 좌우됩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주어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자주적 권리는 인간의 사회정치적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는 사회공동의 요구와 사회적 집단의 매 성원들의 요구를 옳게 결합시켜 다같이 실현하는 참다운 권리입니다. 인민대중은 자주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사회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 수 있습니다. 자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입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로서 인민대중이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며 값높은 정치생활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자주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은 공민의 권리는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자주적 권리를 법화한 것입니다. 인민정권은 인민에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은 자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 주며 인민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제때에 받아들이고 집행하며 광범한 대중을 국가관리와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시켜 모든 공민들이 국가적인 정치생활을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국가적인 정치생활을 통하여 인민대중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 . .

인민정권은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시대와 혁명이 발전하는데 따라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인민정권은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되어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간고하지만 쟁취한 정권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정권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사업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정권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이 자주적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되어 나갈 때에는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인민의 버림을 받는 정권은 무너지지만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정권은 강해집니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건설하자면 인민정권이 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그것을 구체화한 자기의 시책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의 시책에 의하여 정권건설과 활동의 기본방향과 내용, 방법이 규정됩니다. 정권을 어떻게 건설하고 관리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인민정권이 자기의 시책을 어떻게 세우고 집행하는가 하는데 귀착됩니다. 인민정권이 시책을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게 세운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자기의 조직적 의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의사를 자기의 의사로 전환시킨다고 하여 정권건설과 활동이 곧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실질적으로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건설하고 관리운영하자면 인민정권이 자기의 시책을 인민대중자신의 것으로 전환시키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하여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민정권이 자기의 시책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집행정형을 감독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기구적으로, 법률제도적으로 고착시켜 실제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민정권이 자기의 시책을 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세우고 집행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언제나 인민대중의 참다운 복무자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건설하자면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건설해 나가는 사업은 사회주의 제도의 강화발전에 의하여 담보되고 심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인민정권을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과 혼연일체를 이룬 참다운 혁명정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 .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자면 각급 정권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정권기관 사업을 발전하는 현실과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야 합니다.

주권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주권기관은 인민대중의 진정한 대표기관입니다. 주권기관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인민대중의 이익에 맞게 주권을 행사합니다. 주권기관은 정권기관 체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주권은 오직 주

➡

광고

6.15주간

38호 (3/8~3/14)

노작 –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결성할 데 대하여

특집1 - 부시의 대리자 이회창 대선 전에 침몰시키자
이회창, 얄팍한 웃음 뒤에 무서운 흉심
한나라당, 깨질 조짐 보인다 / 이회창은 미국의 대변자인가
이회창, 일본에서 또 반북 망언
정치문맹자 이회창 / 비주류 탈당과 빌라게이트 파문
한나라당 내분, 위기의 이회창
김원웅 의원, ≪이회창 후보 안된다≫ / 네티즌에게 찍힌 이회창

특집2 - 막나가는 부시, 핵전쟁까지
미국의 핵공격계획에 대응조치 취한다
미국의 심상치않은 군사적 움직임
미국, 비밀예비정부 가동중
미, 실전사용 가능한 핵무기 추진 / 부시, 북 · 중 · 러 등에 핵사용 준비 지시
부시 행정부 대북 핵전략의 실체 / 미국 핵정책 내외 비판 빗발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호전광 이회창역도를 그대로 놔두면 전쟁이 터진다

대담
연대연합은 운동승리의 담보 / 봄철 투쟁의 불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권기관에 의하여 대표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의 활동에 의하여 주권의 유일성과 완전성이 담보됩니다.

민주주의적 선거원칙에 따라 각계각층의 우수한 대표들로 구성된 인민회의는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입니다.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인민회의를 사회주의 헌법의 요구에 맞게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높은 수준에서 운영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법령과 결정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인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들은 인민회의에서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발언권과 결의권을 옳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대의원들은 늘 선거자들과 군중 속에 들어가 군중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하며 그들을 당과 국가의 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인민위원회는 상설적인 주권기관이며 그 활동에서 기본은 주권적 지도입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국가의 법령, 명령, 정령, 결정, 지시와 지방인민회의 결정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지도하고 감독 통제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령과 결정이 채택되어도 인민위원회가 주권적 지도를 잘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확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국가와 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행정경제기관의 사업과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올바로 장악지도하여야 합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소집하고 운영하며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문제를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토의 결정하여야 합니다.

인민위원회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앙인민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으며 정권기관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무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잘하는 한편 지방인민위원회 사업과 사법검찰기관사업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행정적 집행기관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행정적 집행기관은 주권기관의 법령, 명령, 정령, 결정, 지시에 기초하여 사회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관리하며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사회가 보다 조직화되고 사회생활이 다양해지는 것만큼 행정적 집행기관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사회주의제도를 옳바로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입니다. 정무원은 당과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나라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 지도합니다. 정무원은 나라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다 틀어쥐고 지도하여야 하지만 경제사업에 대한 지위에 기본을 두어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는 경제사령부인 정무원에 집중하여야 하며 거기에서 조직되고 포치되어야 합니다. 정무원은 전반적 경제사업에 대한 작전과 통일적 지휘를 바로하고 국가 행정규율을 강하게 세워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무원에서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위원회,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입니다. 위원회, 부는 정무원의 지도밑에 자기의 임무와 권한에 따라 해당부문 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관리하여야 합니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해당단위의 전반적 관리기관입니다. 해당 지방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지방행정기관의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해당지역의 공업, 건설, 교육, 보건, 인민봉사, 지방무역을 비롯하여 여러부문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해당지역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행정규율을 철저히 확립하고 행정적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잘해나가야 합니다.

. . .

군정권기관 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특별히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군정권기관은 인민정권기관의 말단기관이며 군은 지방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인 단위이고 지방살림살이를 직접 맡아하는 기본단위입니다. 군정권기관 사업이 잘되면 군이 강화되고 나아가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군정권기관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당면한 요구와 전망적인 요구에 맞게 군을 튼튼히 꾸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을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군정권기관은 이미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과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 군민일치모범군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모범군칭호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리, 동, 사무소와 인민반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붉은기동, 인민반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가정을 혁명화하며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고 관리하며 사회질서를 유지강화하는 사업을 더 잘해나가야 합니다.

중앙과 도의 정권기관은 군정권기관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군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인민정권활동의 기본방식입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 본성을 구현한 민주주의이며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정권사업에 널리 참가시키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제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혁명적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인민정권기관 활동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요구입니다. 혁명적 군중노선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인민정권활동의 기본원칙입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이며 그들 자신의 정치입니다. 인민정권기관 활동에서 혁명적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목적 의식적으로 떨쳐나설 수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자기 활동에서 인민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아야 하며 모든 것을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켜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자기앞에 나선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좌우명으로 삼고 늘 군중 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입니다.

현시기 정권기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는 것입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인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기관이 아니라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보장하여주는 복무기관이며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관료가 아니라 인민의 심부름군입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가 허용되면 인민의 이익이 침해되고 정권기관이 인민의 배척과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교양사업을 강화하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제때에 강한 투쟁을 벌여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 속에서 본위주의와 무책임성을 반대하는 투쟁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본위주의는 당과 국가의 이익보다 자기 단위, 자기 지방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릇된 사상관점입니다. 개인 이기주의와 공명 출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본위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국가의 중앙집권적 관리질서를 문란시키고 당정책 관철을 저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 속에서 부서 본위주의, 기관 본위주의, 지방 본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여 그것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사명을 지닌 정권기관 일군들에게 있어서 자기 사업에 대한 무책임성은 곧 인민의 신임과 기대에 대한 배반으로 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끝까지 풀어나가야 합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것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 구호입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언제나 이 구호의 요구대로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발양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의 사업체계를 개선 완성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의 사업체계를 발전하는 현실과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야 인민정권기관이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올바로 구현하는 것은 인민정권기관의 사업체계를 개선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입니다. 인민의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은 인민정권의 통일적 지도에 의하여 보장되며 인민정권의 통일적 지도는 중앙집권제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중앙집권제에 의거한 민주주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이며 인민에게 민주주의를 더 잘 보장해 주는 중앙집권제만이 참다운 중앙집권제입니다. 인민정권기관의 사업체계는 중앙집권제를 중시하고 앞세우는 기초위에서 민주주의를 옳게 발양시킬 수 있게 세워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구현하는 것과 함께 사업규범과 직능을 잘 만들고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국가관리의 정규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국가의 법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법은 모든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며 인민정권활동의 기본무기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조직적으로 생활하고 그것이 의무적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공화국 영토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국가의 법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합니다. 사회에 법질서가 철저히 서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인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와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부문 법과 규정을 새로 만들며 이미 있는 법규도 더욱 완성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법령, 결정,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는 국가행정규율을 강하게 세우며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정치사상수준과 실무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정권기관 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입니다. 인민정권기관사업의 성과여부는 정권기관 일군들이 정치사상수준과 실무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아야 합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첫째가는 품성입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지녀야 혁명과 건설에서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생활화하여 그것이 가장 공고하고 순결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실천투쟁속에서 높이 발양되어야 합니다. 당과 수령이 내놓는 노선과 방침을 옹호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인민대중을 위한 투쟁이며 그것을 떠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인민의 이익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길에서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높은 지휘능력, 혁명적 전개력을 가져야 합니다. 발전하는 현실은 정권기관 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이론과 방법론을 체득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실력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우고 꾸준히 학습하며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성실히 배워야 합니다.≫(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장군 1992 12 21)

(내일 계속)